

지역 매아리

정읍시, 시내버스 활용 금연 홍보

정읍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활용해 대대적인 금연 홍보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외부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 내용은 '내 배 연기에 왜 당신의 건강을 태우십니까',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 첫 걸음 금연!!' 등이다. 금연 홍보와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 상담실 이용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홍보도 시내버스 측면(인도면, 차도면) 광고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곳곳을 달리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로컬JOB센터,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 간담회 열어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가 최근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고인돌 일자리창출단' 간담회를 열었다.

고인돌일자리창출단은 고창군 내 비경제활동인구를 비롯하여 구인농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로컬JOB센터가 이장·부녀회장 등 16명을 위촉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고창군로컬JOB센터 개소 이후, 그 간의 센터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각 읍면별 구직희망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발굴과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로컬JOB센터의 근로자 차량 지원,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지원, 다양한 정부·지자체 일자리 및 고용지원금 등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이용을 당부했다.

반면,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은 고창군로컬JOB센터에 내국인 중심의 취업알선을 비롯하여 고용정책 및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인기업 및 농가에 대한 여러 정보 제공도 요청했으며, 농장주에 필요한 일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풀을 확보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고창군로컬JOB센터 김희진 센터장은 "고인돌 일자리 창출단은 고창군내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을 로컬JOB센터 자문위원격으로 모시고 마을 현장의 동향과 구인·구직자를 발굴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 연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상 속 최고를 찾아라!

시, 내달부터 60일간 정읍기네스 시민공모전 진행

정읍시가 다양한 분야의 최고·최초·최대·최다 등 일상 속의 기네스를 찾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0일간 '2019 정읍기네스 시민공모전'을 진행한다.

'별별 최고를 찾아라!'라는 주제의 공모전은 정읍시민의 일상을 담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인물과 문화예술, 산업경제, 건축물, 자연경관 등 분야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읍기네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홈페이지 또는 시청 공동체과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정읍민의 상징성과 공감성, 객관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정읍기네스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참가자에게 인증패와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스토리텔링화해 정읍기네스 북 책자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정읍의 자랑거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읍기네스 인증과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정읍기네스 신청과 심사·인증 등을 통한 기록물 관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 앞 분수광장이 사계절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읍시청 분수광장,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인기'

정읍시청 앞 분수광장이 사계절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청사 분수광장 주변에 디자인의 자와 테이블, 그네 의자를 설치하여 심뎀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시청사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시민들에게 추억이 깃들 수 있는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이번 야간 경관 조명으로 청사를 새롭게 연출함으로써 야간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과 외부 침입으로의 보안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청 주변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시청사 경관 조명 점등과 더불어 내장도 산책로 약 2.2km 구간과 연지교에서 정동교까지 약 2.8km 구간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 조명으로 시의 야간 경관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여건을 개선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해 41억원 규모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도 21억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NH농협 부안군지부(부안을 서외리 13-3) 부지에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주차타워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로변 불법 주차차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역사의 고장, 정읍으로 오세요"

시,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실시

정읍시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 방송 작가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팸투어에는 전국의 방송 작가 28명이 참가했다.

2019~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명소와 먹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방송 소재의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방송에 나오는 특정 지역이 주요 관광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읍을 실제 프로그램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읍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첫날, 참가자들은 '수확의 정석' 홍성대 선생 형제들이 지은 태인 명봉도서관 방문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무성사원(사적 제166호)을 시작으로 신정중 철단과화관과 전북기상과학관을 방문했다.

이어 최고 품질 한우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단풍미인한우를 맛본 후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내장산 한옥 펜션에 여

장을 풀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내장산을 찾아 날로 푸름을 더해가고 있는 초록단풍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내장산을 탐방한 후 내장사 주지 도완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도 가졌다.

또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인 김명관 고택을 체험한 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 부패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정읍의 맛 전설의 생화학자 거리를 찾아 지황을 비롯해 정읍에서 생산된 20여 가지 특산물 약재를 달여 낸 생화학도 맛보았다.

유진섭 시장은 환영 만찬 간담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가 있는 정읍에 오신걸 환영하고 정읍의 문화자원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기 넘치는 필력과 고도의 지적능력, 공감능력을 통해 정읍을 알리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서울특별시와 상생협력 위한 협약 체결

고창군이 서울특별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람·정보·물자 관련 상생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는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생사업 적극 발굴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상생사업의 지속성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고창군과 서울시는 2014년부터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 도시에 '농부의 시장', '서울장터', '김장문화재-절임배추 판매장' 등을 열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성사 시켰다.

또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서울시 직영 상설매장인 '상생상회'에 고창군 5개 업체(복분자 순애·팥공, 꽃차, 죽염, 고구마말랭이, 유과·망개떡)가 입점해 수도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위한 사업도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에선 귀농귀촌 사업홍보와 참여자 모집, 교육비를 지원하고, 고창군에선 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해 거주 및 체험공간을 마련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도농 간 역사·문화 체험을 위해 매년 서울과 고창을 교대로 청소년 40명씩을 선정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호응이 크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사람·정보·물자 관련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상생의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wine bottles and gift sets.